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고 현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lesbian, gay, & bisexual; 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가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비성소수자가 지닌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만 19세에서 39세 비성소수자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 척도, 양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 직접 및 간접 접촉 문항들,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이 여성보다 남성일 때, 그리고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보다 양성애자일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접 접촉 문항 중 준사회적 상호작용,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 중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다고 인지할수록, 세속적인 것보다 종교를 지지할수록,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을수록, 성적 지향이 어린 시절에 결정되며 고정되는 범주가 아니라고 믿을수록, 동성애가 역사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고 믿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각각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태도 예측 변인들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그 예측 변인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LGB)에 대한 태도,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hpark@sungshin.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제 사회에서 성소수자¹⁾의 권리 증대 및 수용,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 및 정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키쉬겔게이, 2018). 국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정애경, 윤은희, 2020).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애경과 윤은희(2020)는 비성소수자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이들의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그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태도란 사물, 사람, 집단, 문제 또는 개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인 것까지의 하나의 차원에서 내린,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07). 또한 태도는 정신적·신경적 준비 상태로서,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며, 서로 관계된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에 직접적 혹은 역동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Cantril & Allport, 193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에서 긍정까지

의 차원에서 내린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로서,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사회적으로 다른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Herek, 2000a; Kaiser Family Foundation, 2001), 이성애자가 이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 또한 상이하다(Eliason, 1997; Herek, 2002). 예를 들어, Eliason(1997)의 연구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이성애자 대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이성애자들은 양성애자 남성을 가장 수용할 수 없으며, 양성애자 여성을 가장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erek(2002)은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보다 양성애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각각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내에서 수행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였고(강현선, 김현주, 2016; 김은하, 신윤정, 2016; 서영석 등, 2006; 윤이현 등, 2016; 이봉재, 2006; 장인실, 2017;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정애경, 윤은희, 2020; 조령함, 이윤, 이혜은, 2021; 최경화, 신형진, 2019; 후지사키, 강신재, 진영재, 2019),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개인의 성별에 따라서도 이성애자들은 다른 태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성애자들은 게이보다 레즈비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Eliason, 1997; Herek, 2000b, 2002; LaMar & Kite, 1998; Proulx, 1997; Span & Vidal, 2003; Whitley, 2001), 양성애자 남성보다 양성애자 여성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Helms & Waters, 2016; Herek, 2002; Mohr & Rochlen, 1999; Steffens & Wagner, 2004). 하지만 국내에서 동성애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며(서영석, 차주환, 이정림, 2006; 윤이

1)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의 차원만을 고려하므로 레즈비언, 게이와 양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양성애자의 성별에 따른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비성소수자가 다른 태도를 보고하는지 살펴 보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예측 변인

Worthen(2013)은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LGBT) 연구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하며,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태도에 대한 예측 변인 중 성소수자(LGBT) 개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변인들(접촉, 성별에 대한 믿음, 종교성, 성적 지향의 근원에 대한 믿음)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밝혔으므로(김은하, 신윤정, 2016; 서영석 등, 2006; 장인실, 2017),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믿음을 제외하고 접촉, 종교성 및 성적 지향의 근원에 대한 믿음의 세 가지 예측 변인을 활용하여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측 변인을 직접 접촉 경험, 간접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으로 설정하고, 위의 변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직접 접촉 경험

지난 수십 년 동안 접촉을 통하여 고정관념, 사회적 범주화 및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과 모형이 제안되었다(예: Brewer & Brown, 1998; Hewstone, Rubin, & Willis, 2002). 이 가운데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Allport(1954)의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편견은 불안정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집단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를 한 결과이므로, 해당 집단과 접촉하면서 집단 범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때 감소할 수 있다.

Allport(1954)는 집단 간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네 가지 최적 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집단 간 지위가 동등해야 하며, 공동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정부 정책, 법률, 사회적 관습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적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도 접촉 자체는 편견을 감소시키지만, Allport가 제안한 최적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편견 감소의 효과가 가장 컸다(Pettigrew & Tropp, 2006). 한편, Pettigrew(1997, 1998)는 집단 간 우정은 일회성의 접촉과는 다르게 장기간의 접촉을 포함하므로, Allport의 최적 접촉 조건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 간의 단순한 접촉 경험이 아닌, 집단 구성원 간의 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리라고 예상되는 변인으로서 성소수자 친구와 지인의 수도 측정하였다.

한편, Allport(1954)는 성소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과 편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접촉의 양과 접촉의 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접촉의 양은 접촉 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접촉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며, 접촉의 질은 외집단과의 접촉의 질을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거나 외집단과의 교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등의 문항 세트를 통해 측정한다. 집단 간 접촉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접촉의 양과 접촉의 질은 일반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었다(Islam & Hewstone, 1993; Prestwich, Kenworthy, Wilson, & Kwan-Tat, 2008). 그러나 단순히 접촉의 양이 많은 것으로도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존

재하는 한편(예: Eddy, 1986; Revenson, 1989), 접촉의 양보다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태도와 더 강하게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었다(Caspi, 1984; Cook, 1985; Desforges et al., 1991; Sigelman & Welch, 1993; Wittig & Grant-Thompson, 1998). 이처럼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접촉의 빈도 혹은 질 중 무엇이 긍정적인 태도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지인의 존재 여부(서영석 등, 2006), 동성애자와의 접촉 경험(강현선, 김현주, 2016) 등으로 직접 접촉 경험을 측정하였던 바,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의 양과 질을 구분하여 각각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의 양과 질이 각각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간접 접촉 경험

간접 접촉은 직접 접촉에 대한 대안으로 탐색되고 있다(Harwood, 2017). 간접 접촉이란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을 의미한다(Vezzali, Hewstone, Capozza, Giovannini & Wölfer, 2014). 간접 접촉은 대리 접촉(vicarious contact), 확장 접촉(extended contact), 매개 접촉(mediated contact),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간접 접촉의 유형 중 매개 접촉과 대리 접촉의 일종인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매개 접촉은 접촉 과정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매개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데, 매개 접촉의 예로는 전화 통화, 전자 메일, 텔레비전 등과 같이 매체를 통해서 상

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 매개 접촉의 하위 개념인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외집단 구성원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이, 매개 채널을 통해 외집단 구성원을 관찰하는 것이다(Schiappa, Gregg, & Hewes, 2006).

Horton과 Wohl(1956)은 미디어를 통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등장인물과 면대면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인지된 사실성과 사회적 매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Schiappa, Allen, & Gregg, 2007). 인지된 사실성은 미디어 속 인물이 해당 집단의 현실적인 구성원을 나타낸다고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정도를, 사회적 매력은 미디어 속 인물을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미디어 시청자는 미디어 인물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Conway & Rubin, 1991). 사람들은 미디어 속 가상 인물과 실제 세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디어를 시청하는 동안 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들이 집단 간 상호작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면, 집단 간 접촉의 사회적 순기능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직접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일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예: Neuendorf, Armstrong, & Brentar, 1992; Fujioka, 1999; Tan, Fujioka, & Lucht, 1997).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성소수자를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aunach et al., 2009; Hleton & Szymanski, 2014). 일례로,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Will & Grace'를 시청한 빈도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낮게 나타났다(Schiappa et al., 2006). 또한, 게이가 등장하는 드라마인 'Six Feet Under'와 게이가 출연하는

예능인 'Queer Eye'를 시청하였을 때도 낮은 수준의 편견이 보고되었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국내에서 수행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동성애 관련 강좌 수강 경험(이봉재, 2006), 동성애 관련 미디어 이용(조령함 등, 2021) 등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간접 접촉 경험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시청 시간, 시청한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및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간접 접촉 경험을 측정하여, 이러한 간접 접촉 경험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적 근본주의

지난 2세기 동안 포스트모던 사고방식이 부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전통 사이에서 종교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가 성장하고 있다(Marty & Appleby, 1995).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성·자유·성다양성·대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방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종교를 믿는 것은 어려워졌다. 종교 근본주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 현대의 문화적 특징인 상대적 도덕 신념 체계에서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반응을 의미한다(Liht et al., 2011). 종교적 근본주의와 유사하지만 변별되는 개념으로 신앙심이 있다. 신앙심은 인간이 초자연적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뇌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다(박준성, 2010). 종교적 근본주의와 신앙심은 종교에 대한 신념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종교적 근본주의가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신앙심은 개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데 차이가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많은 학자에 의해 독단적 믿음이나 경전을 문자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Altemeyer & Hunsberger, 1992; Williamson & Ahmad, 2007).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religious fundamentalism scale)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종교적 근본주의가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졌다(예: Arli, Badejo, & Suranto, 2020; Hunsberger, 1996; Hunsberger, Owusu, & Duck, 1999; Jonathan, 2008; Lazar & Hammer, 2018). 그러나 Liht와 동료들(2011)은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다른 종교를 믿는 표본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예: 사탄, 어둠의 왕자)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타당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교적 근본주의를 단일 요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종교적 근본주의가 다차원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Liht와 동료들(2011)은 Altemeyer와 Hunsberge(1992)의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또한 척도의 내용에 기반하여 종교적 근본주의를 '도덕적 권위를 신에게 위치시키며, 맥락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을 고수하고, 세속적인 경험보다는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의 지향'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Liht와 동료들(2011)의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는 외부 대 내부 권한(external versus internal authority), 고정 대 가변 종교(fixed versus malleable religion), 세속적 거부 대 지지(worldly rejection versus worldly affirmation)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요인은 하나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먼저, 외부 대 내부 권한과 관련하여, 외부 권한을 나타내는 극단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이고 올바르기 위해서는 신의 권위에 기초해야 하며, 종교는 개인의 삶에 불가항력으로 존재하는 힘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내

부 권한을 나타내는 반대편 극단은 도덕성의 범위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기인해야 하며, 종교는 개인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을 가진 힘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대 가변 종교와 관련하여, 고정 종교 극단은 종교적 전통이 역사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역사문화적 맥락은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관계없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가변 종교를 나타내는 반대편 극단은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적 전통이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며, 종교적 전통은 과거의 종교 관습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도록 하는 역사문화적 맥락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속적 거부 대 지지와 관련하여, 세속적 거부 극단은 속세를 초월한 종교적 존재보다 자연 세계, 과학, 세속적 문화,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는 잠시 동안 경험되므로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적 지지를 나타내는 반대편 극단은 종교적 존재보다 세속적인 것을 중시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 종교 유형 등의 명목변수 수준에서의 분석과 종교를 가진 이들의 내·외현적 종교 성향(서영석 등, 2006), 종교성(이봉재, 2006) 등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분석에서 나아가, 종교의 근본성에 대한 신념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종교적 근본주의가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Lihr et. al., 2011)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종교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의 근본성에 대해 지닌 신념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질주의적 믿음

본질주의는 인간 속성과 사회적 범주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 차이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가정을 반영한다(Haslam, Bastian, Bain, & Kashima, 2006). 구체적으로, 사회적 범주는 깊이 있고 관찰할 수 없는 현실이며, 범주 구성원의 내재된 특성(예를 들어, 기질)을 이끌어 낸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본질은 자연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불변적인 특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질주의적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존재론일 뿐 아니라, 집단 인식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본질주의적 믿음과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였다. Allport(1954)는 본질주의적 믿음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Rothbart와 Taylor(1992)는 본질주의적 사고가 집단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든다고 주장하였고, Leyens와 동료들(2000)은 본질주의적 사고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는 외집단을 하등 인간화(infra-humanized)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수행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는 본질주의적 믿음이 고정관념 및 편견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예: Haslam et al., 2000; Karafantis & Levy, 2004; Levy & Dweck, 1999; Levy, Stroessner, & Dweck, 1998; Martin & Parker, 1995).

한편, 기존의 본질주의적 믿음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귀인 이론의 차원 중 하나인 통제 가능성을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적용해 살펴볼 때, 성적 지향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 태어나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면 동성애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Falomir-Pichastor & Mugny, 2009; Weiner, 1995; Whitley, 1990). 또한 Wilcox와 Norrande(2002)는 미국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성적 지향이 출생시 고정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77년에는 13%였지만 2001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

의적 믿음이 확산하면서 미국인들이 동성애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며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Altemeyer, 2001; Brooky, 2002; Ernulf, Innala & Whitam, 1989; Hegarty & Pratto, 2001; Jayaratne et al., 2006; Matchinsky & Iverson, 1996; Tygart, 2000).

Haslam과 Levy(2006)는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분별성(discreteness), 불변성(immutability) 및 보편성(universality)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분별성은 사람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두 집단 구성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불변성은 성적 지향이 생물학에 기반하고 어린 시절에 결정되어 어른이 되어서는 고정되는 범주라는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동성애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별성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며, 불변성과 보편성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Haslam & Levy, 2006). 연구자들은 기존의 제시된 다양한 이론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였다. 먼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믿음, 즉 분별성은 집단 차이를 강조하여 내집단(이성애자)과 외집단(성소수자)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하등 인간화의 견해를 조장하여 고정관념을 심화

시킬 수 있다(Haslam, Rothschild, & Ernst, 2000; Rothbart & Taylor, 1992; Yzerbyt, Rocher, & Schadron, 1997). 반면, 성적 지향이 어린 시절에 결정되어 어른이 되어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믿음, 즉 불변성은 성적 지향을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Whitley, 1990). 이러한 불변성에 대한 믿음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주된 주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성애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즉 보편성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동성애자가 자연스럽다고 제안하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Haslam & Levy, 2006; Hubbard & Hegarty, 2014).

국내에서 수행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는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가운데에서 택일하도록 하는 방식(강현선, 김현주, 2016; 이봉재, 2006)으로 동성애에 관한 비성소수자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은 단일 문항을 사용하므로 다중 문항을 사용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원인을 선천 혹은 후천으로 인지하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을 이루는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 중 어떠한 요인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지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 문항으로 구성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인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여러 측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본질주의적 믿음의 각 하위 요인 간의 관계가 이전에 다른 문화권에서 관찰되었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범주로 구분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비성소수자가 지닌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가설은 아래와 같았다.

연구 문제 1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가?

가설 1-1: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1-2: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구 문제 2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가?

가설 2-1: 성소수자 직접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일 것이다.

가설 2-2: 성소수자 간접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일 것이다.

가설 2-3: 비성소수자의 종교적 근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덜 우호적일 것이다.

가설 2-4: 비성소수자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분별성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덜 우호적이며, 보편성과 불편성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일 것이다.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SSWUIRB-2022-02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집단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비성소수자 한국인 남녀로 설정하였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이들이 청년 세대로서 미래의 사회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며, 온라인 설문 접근 용이성에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개인차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범주에 따라 상호 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다양한 태도를 지닐 수 있기에(예: Mohr & Rochlen, 1999; Worthen, 2013), 성소수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다른 기제로 설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모집단을 비성소수자로만 한정하였다.

연구 참가자 모집에 앞서, G*power 3.1을 사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계산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시 필요한 최소 연구 참가자의 수를 산출할 때, 다중 비교로 인해 나타나는 1종 오류 증가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확률 .05를 예측 변인의 수(16)로 나눠 0.003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검정력은 .95, 효과크기는 .1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292명의 참가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는 최종적으로 71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도 탈락 118명, 스크리닝 탈락 94명, 중복 IP 응답자 159명²⁾, 응답 소요 시간 4분 이하³⁾ 25명, 한 줄 응답과 같은 불성실한 연

방 법

2)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내 중복 응답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였지만, 온라인 쿠키를 삭제한 후 동일한 IP를 통해 중복 응답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IP 주소가 2회 이상 중복되는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설문에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구 참가자 14명을 제외한 총 30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Herek(1988)이 개발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s Scale)를 번역-역번역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관련 10문항과 게이에 대한 태도 관련 10문항을 포함,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난 대 관용(condemnation-tolerance)의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Herek(1994)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문항으로 측정하므로,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하위 척도를 선택해 동일한 문항으로 다른 하위 척도를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하위 척도를 선택하여, 레즈비언과 게이를 각각 지칭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레즈비언은(게이는)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척도에 대한 응답은 9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척도들 간 응답 범위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문항의 내용이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므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Herek, 1988)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92, 게이에 대한 태도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90, 게이에 대한 태도 .92로 나타났다.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Mohr와 Rochlen(1999)이 개발한 양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Scale; ARBS)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ARB-W) 관련 12문항과 양성애자 남성에게 대한 태도(ARB-M) 관련 12문항을 포함,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버전과 남성 버전의 문항 내용은 동일하며, 성별 호칭만 바뀌 제시된다. 본 척도는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과 ‘양성애의 안정성’이라는 두 하위 요인을 각각 6문항으로 측정한다. Herek (1994)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해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를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모두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면,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중 양성애의 안정성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와 동일하게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을 측정하는 동시에, 양성애의 안정성까지 측정할 수 있는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ARBS)를 선택하였다. 양성애의 안정성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여성(남성)의 양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가 있으며, 양성애자 개인에 대한 관용 관련 문항의 예로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남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가 있다. 이러한 문항들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선행 연구(Mohr & Rochlen, 1999)에서

짧을 경우, 불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연구의 내용에 친숙한 연구 보조자 2명이 신속하게 설문에 응답하였을 때, 약 4분 30초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질문지를 처음 접한 연구 참가자가 응답하는 데 위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에 불성실한 응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채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에 대한 응답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가 양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도록 채점하였다. 선행 연구(Mohr & Rochlen, 1999)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 .88(ARB-W .90, ARB-M .90), 양성애의 안정성 .91(ARB-W .86, ARB-M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 .97(ARB-W .95, ARB-M .95), 양성애의 안정성 .92(ARB-W .85, ARB-M .85)로 나타났다.

직접 접촉 문항들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Shim et al., 2012)에서 직접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직접 접촉 경험은 접촉 빈도(3문항), 접촉의 질(3문항),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수(1문항)로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 문항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구 참가자가 성소수자와 사적인 대화, 공부나 일, 사교적 활동을 함께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접촉 빈도 문항의 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귀하께서 LGB 사람들과 공부나 일을 함께하신 적이 몇 번 있나요?'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접촉 빈도를 평정하였다(1: 전혀 없다 - 5: 4회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와 접촉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Shim et al., 2012)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다음으로, 접촉의 질 문항들은 연구 참가자에게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즐거웠는지, 그리고 우호적이었는지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귀하께서는 LGB 사람들과 보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가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소중하지 않다 - 5: 매우 소중하다). 직접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도 응답할 수 있도

록 '해당 사항 없음'을 응답 선택지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경우에는 접촉의 질을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접촉의 질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이들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와 질 높은 접촉을 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Shim et al., 2012)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는 '귀하께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LGB 친구 및 지인이 몇 명 있으신가요?'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0명에서 100명 사이에서 응답이 가능한 슬라이드 척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지인 및 친구의 수를 밝혔다. 추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새롭게 코딩하여 분석하였다(1: 전혀 없음 - 5: 4명 이상).

간접 접촉 문항들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Shim et al., 2012)에서 간접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간접 접촉 경험은 미디어 시청 시간(1문항), 미디어 다양성(1문항) 및 준사회적 상호작용(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GB 콘텐츠를 레즈비언, 게이 혹은 양성애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미디어 시청 시간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 텔레비전, DVD와 같은 미디어 채널을 통해 LGB 콘텐츠를 시청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시청 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주관식으로 기재하였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다음의 LGB 콘텐츠 목록 중 귀하께서 시청하셨던 콘텐츠에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총 30개의 콘텐츠에 대해 제목, 감독(방송사), 개봉 연도(방영 기간), 포스터(대표 사진)를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LGB 콘텐츠 목록 중 자신이 시청한

LGB 콘텐츠에 표기하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LGB 콘텐츠를 시청하였을 경우 기타 항목에 추가로 기재하였다. 목록에 포함될 LGB 콘텐츠를 선정할 때 네이버 영화, 왓챠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관객 수, 평점 등록자 수 등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구 참가자가 좋아하는 LGB 등장인물을 떠올리고 해당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만약 좋아하는 LGB 등장인물이 없는 경우에는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LGB 콘텐츠를 하나 선택해서 해당 콘텐츠의 LGB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매력(3 문항)과 인지된 사실성(3문항)의 6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매력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해당 등장인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가 있으며, 인지된 사실성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해당 등장인물은 나에게 실제 인물처럼 느껴진다.'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선행 연구(Shim et al., 2012)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Liht와 동료들(2011)이 개발한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를 번역-역번역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소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종교 소속을 명시하도록 한 뒤,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는 기존의 문항들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나의 종교'를 '종교'로 수정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외부 대 내부 권한(5문항), 고정 대 가변 종교(5문항) 및 세속적 거부 대 지지(5문항)의 세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대 내부 권한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고정 대 가변 종교를 측정하는 문

항의 예로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세속적 거부 대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모든 예술은 신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를 근본주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Liht et. al., 2011)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외부 대 내부 권한 .78, 고정 대 가변 종교 .81, 세속적 거부 대 지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대 내부 권한 .68, 고정 대 가변 종교 .76, 세속적 거부 대 지지 .54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Haslam과 Levy(2006)가 개발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를 번역-역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별성(5문항), 불변성(5문항) 및 보편성(5문항)의 세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분별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성적 지향은 명확하고 뚜렷한 경계가 있는 범주다. 사람들은 동성애자거나 이성애자다.', 불변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한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혹은 이성애자인지는 어린 시절에 거의 정해진다.', 그리고 보편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 동안 쭉 존재해 왔을 것이다.'가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Huic, Jelic, & Kamenow, 2018)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분별성 .67, 불변성 .85, 보편성 .75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변성의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내적합치도는 분별성 .75, 불변성 .70, 보편성 .68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종교, 혼인 상태 및 교육 수준을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지향 및 연령에 관한 문항들은 본 연구에 연구 대상이 아닌 표본이 혼입되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하여 포함하였으며, 해당 문항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종교, 교육 수준, 소득, 혼인 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밝혔으므로(Herek, 198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 주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에 포함시켰다.

연구 절차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연구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고, 별도의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을 읽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연령,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선별 문항에 응답하였는데,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해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 대상을 설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를 종료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가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척도에 무선화된 순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성소수자 직접 접촉 문항들, 성소수자 간접 접촉 문항들,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에 순서대로 응답한 뒤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에 응답하였다. 설문 종료 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바라는 경우 연구자의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가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지급하였으며, 연구 참가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사례를 지급한 후 즉시 폐기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중앙 경향치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평균을 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지표를 산출하였다.

직접 접촉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성소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이들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이때 직접 접촉의 빈도 평균은 1.65($SD=1.57$), 직접 접촉의 질 평균은 2.70($SD=1.86$),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평균은 2.09($SD=1.42$)로 나타났다. 간접 접촉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미디어 시청 시간(시간/일주일)의 평균은 1.76($SD=4.96$), 미디어의 다양성 평균은 5.73($SD=3.95$),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평균은 3.29($SD=.90$)로 나타났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인 외부 대 내부 권한의 평균은 2.19($SD=.75$), 고정 대 가변 종교의 평균은 2.14($SD=.73$), 세속적 지지 대 거부의 평균은 2.06($SD=.60$)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변인인 분별성의 평균은 2.45($SD=.80$), 불변성의 평균은 2.67($SD=.82$), 보편성의 평균은 3.85($SD=.6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연령은 $.21(p<.001)$, 성별은 $.27(p<.001)$, 교육 수준은 $.17(p=.003)$ 로 각각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연령이 높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i>M</i>	<i>SD</i>	skewness	kurtosis
종속 변인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	2.08	.89	1.09	.49
	게이에 대한 태도	2.19	.96	.99	.23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	2.37	.93	.59	-.43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	2.46	.95	.54	-.42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2.29	.89	.77	-.25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28.06	5.60	.18	-.99
	교육 수준	4.52	1.00	-.53	-.94
직접 접촉	직접 접촉의 빈도	1.65	1.57	.38	-1.43
	직접 접촉의 질	2.70	1.86	-.37	-1.34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2.09	1.42	1.02	-.38
간접 접촉	미디어 시청 시간	1.76	4.96	5.40	35.51
	미디어의 다양성	5.73	3.95	.94	.55
	준사회적 상호작용	3.29	.90	-.42	.14
종교적 근본주의	외부 대 내부 권한	2.19	.75	.58	.07
	고정 대 가변 종교	2.14	.73	.31	-.45
	세속적 거부 대 지지	2.06	.60	.80	.84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분별성	2.45	.80	.20	-.52
	불변성	2.67	.82	-.02	-.42
	보편성	3.85	.60	-.38	.04

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종교 유무는 $-.15(p=.008)$, 결혼 상태는 $-.17(p=.004)$ 로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종교가 없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접촉 경험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직접 접촉의 빈도는 $-.30(p<.001)$, 직접 접촉의 질은 $-.29(p<.001)$,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는 $-.26(p<.001)$, 미디어의 다양성은 $-.23(p<.001)$ 으로 각각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65$

($p<.001$)로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직접 접촉의 빈도와 질,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미디어 다양성,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미디어 시청 시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외부 대 내부 권한은 $.32(p<.001)$, 고정 대 가변 종교는 $.38(p<.001)$, 세속적 거부 대 지지는 $.44(p<.001)$ 로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도덕과 올바른의 기준이 신에게 있다고 믿는 외부 대 내부 권한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

표 2. 주요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N=3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연령	.21***																
성별	.27***	.11															
종교 유무	-.15**	.04	.13*														
결혼 상태	-.17**	-.57***	.07	.04													
교육 수준	.17**	.65***	.02	.03	-.29***												
직접 접촉의 빈도	-.30***	-.22***	-.21***	-.06	.13*	-.06											
직접 접촉의 질	-.29***	-.17**	-.20**	-.07	.10	-.05	.76***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26***	-.21***	-.05	.00	.18**	-.09	.67***	.59***									
미디어 시청 시간	.08	.09	-.03	.08	-.09	.02	.04	.06	.02								
미디어의 다양성	-.23***	.11*	-.14*	.05	-.14*	.12*	.23***	.20***	.15**	.16**							
준사회적 상호작용	-.65***	-.20**	-.27***	.09	.09	-.17**	.34***	.34***	.31***	-.06	.33***						
외부 대 내부 권한	.32***	.15*	.00	-.37***	-.04	.10	.02	.06	.05	.00	-.05	-.13*					
고정 대 가변 종교	.38***	.10	.07	-.15**	-.03	.07	-.10	-.09	-.06	.02	-.10	-.28***	.47***				
세속적 거부 대 지지	.44***	.08	.12*	-.10	-.09	.10	-.15*	-.01	-.02	.07	-.11	-.20***	.43***	.29***			
발별성	.75***	.28***	.22***	-.07	-.18**	.20***	-.35***	-.30***	-.30***	.05	-.19***	-.54***	.21***	.33***	.37***		
불변성	.14*	.19**	.01	.06	-.06	.18**	-.13*	-.08	-.10	.01	.05	-.12*	-.03	.06	.14*	.35***	
보편성	-.65***	-.20**	-.29***	.08	.10	-.12*	.35***	.26***	.21***	-.08	.19**	.52***	-.31***	-.46***	-.43***	-.56***	-.1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은 1=여성 2=남성, 종교 유무는 1=종교 있음 2=종교 없음, 결혼 상태는 1=기혼 2=미혼 3=이혼으로 코딩하였다.

1=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2=연령, 3=성별, 4=종교 유무, 5=결혼 상태, 6=교육 수준, 7=직접 접촉의 빈도, 8=직접 접촉의 질, 9=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10=미디어 시청 시간, 11=미디어의 다양성, 12=준사회적 상호작용, 13=외부 대 내부 권한, 14=고정 대 가변 종교, 15=세속적 거부 대 지지, 16=불변성, 17=보편성.

교적 전통은 역사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고정 대 가변 종교의 수준이 높을수록, 속세에 비해서 종교적 존재가 중요하다는 세속적 거부 대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부정적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분별성은 .75($p < .001$)로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불변성은 .14($p = .018$)로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65($p < .001$)로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는 분별성과 성적 지향이 어린 시절에 결정되며 고정되는 범주라고 믿는 불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동성애가 역사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는 보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었다.

종교 유무에 따른 종교적 근본주의 차이 분석

종교 유무에 따라 종교적 근본주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외부 대 내부 권한($t(125.32) = 6.06, p < .001$), 고정 대 가변 종교($t(306) = 2.73, p = .001$) 및 근본주의 전체 척도($t(123.34) = 4.37, p < .001$)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세속적 거부 대 지지($t(125.78) = 1.58, p = .12$)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진 이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들에 비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자신보다 절대적 권위자에게 있다고 더 강하게 믿고, 종교는 역사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며, 전반적으로 종교를 근본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세속적인 것, 예를 들어 자연 세계, 과학, 세속적 문화,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의 가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도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과 성적 지향(2×2)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소수자의 성별($F(1, 307) = 37.96, p < .001$)과 성적 지향($F(1, 307) = 142.85, p < .001$)에 따라 유의한 태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의 성별이 여성($M = 2.22$)일 때보다 남성($M = 2.33$)일 때 태도가 더 부정적이

표 3. 종교 유무에 따른 종교적 근본주의의 차이

	종교	N	M	SD	t	df	p
외부 대 내부 권한	유	89	2.62	.86	6.06	125.32	<.001
	무	219	2.01	.61			
고정 대 가변 종교	유	89	2.31	.77	2.73	306.00	.006
	무	219	2.06	.71			
세속적 거부 대 지지	유	89	2.16	.74	1.58	125.78	.118
	무	219	2.03	.53			
종교적 근본주의 전체 척도	유	89	2.36	.66	4.37	123.34	<.001
	무	219	2.03	.45			

었으며,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M=2.14$)일 때보다 양성애자($M=2.42$)일 때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간 관계

성소수자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와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성별과 종교 유무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11.01, 유의확률은 $p<.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5.4%(수정 계수 14.0%)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변인의 공차는 .407~.980로 .1이상이었으며, VIF(분산팽창요인) 계수는 최대가 2.457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값은 1.796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도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들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가운데 존사회적

표 4.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성소수자의 태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N=308)

변인	제공합	df	평균제공	F	p
오차(성별)	28.96	307	.09		
성적 지향	24.17	1	24.17	142.85***	<.001
오차(성적 지향)	51.94	307	.17		
성별x성적 지향	.03	1	.03	.692	.406
오차(성별x성적 지향)	11.23	307	.04		
요인	차원	M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성별	여성	2.22	.05	2.12	2.32
	남성	2.33	.05	2.23	2.43
성적 지향	동성애자	2.14	.05	2.03	2.24
	양성애자	2.42	.05	2.31	2.52
성별 x 성적 지향	여성 동성애자	2.08	.05	1.98	2.18
	여성 양성애자	2.37	.05	2.26	2.47
	남성 동성애자	2.19	.05	2.09	2.30
	남성 양성애자	2.46	.05	2.36	2.57

* $p<.05$, ** $p<.01$ *** $p<.001$.

표 5.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β	t	p	B	β	t	p
통 계 변 인	성별	.54	.29	5.39***	.000	.09	.05	1.47	.143
	연령	.01	.05	.59	.554	-.01	-.07	-1.46	.144
	종교 유무	-.37	-.19	-3.54***	.000	-.08	-.04	-1.20	.231
	혼인 상태	-.26	-.12	-1.84	.066	-.14	-.06	-1.60	.111
	교육 수준	.09	.10	1.41	.161	.03	.03	.73	.465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6	.10	1.80	.073
	직접 접촉의 질					-.04	-.08	-1.56	.120
	성소수자 지인 및 친구의 수					-.02	-.03	-.72	.474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77	.443
	미디어의 다양성					.00	.01	.15	.882
	준사회적 상호작용					-.27	-.28	-6.55***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08	.07	1.70	.090
	고정 대 가변 종교					.00	.00	-.02	.981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8	.12	3.09**	.002
	분별성					.52	.46	10.37***	.000
	불변성					-.09	-.08	-2.31*	.022
	보편성					-.25	-.7	-3.75**	.000
		R^2		.154				.720	
	수정된 R^2		.140				.704		
	R^2 변화량		.154				.566		
	F		11.006***				43.93***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2.238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세속적인 것에 비해 종교를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을수록, 성적 지향이 타고 태어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이라고 믿을수

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고 믿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값은 43.93,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72.0%(수정 계수 70.4%)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변인의 공차는 .310~.926로 .1이상이었으며, VIF(분산

팽창요인) 계수는 최대가 3.223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값은 2.238로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도 지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 에 대한 태도 간 관계 분석

성소수자들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이들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 각각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별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부록 1, 게이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부록 2,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부록 3,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성별과 종교 유무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6.0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5.2%(수정 계수 12.7%)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직접 접촉의 빈도, 직접 접촉의 질, 준사회적 상호작용, 고정 종교 대 가변 종교,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이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접촉 빈도가 적을수록, 접촉의 질이 높을수록,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LGB) 등장인물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이 높을수록, 종교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성적 지향이 타고 태어나며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2단계의 F 값은 30.6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70.3%(수정 계수 68.0%)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게이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성별, 종교 유무 및 혼인 상태가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미혼인 사람들의 게이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7.06,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7.2%(수정 계수 14.7%)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성별이 여전히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연령 또한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과 보편성이 게이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에 등장하는 성소수자(LGB)의 사회적 매력과 인지된 사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종교적인 것에 비해 세속적인 것을 지지할수록,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지 않을수록, 동성애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믿을수록 게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2단계의 F 값은 26.3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67.1%(수정 계수 64.5%)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성별과 종교 유무가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5.97,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5%(수정 계수 12.5%)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과 보편성이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39.64,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69.6%(수정 계수 67.2%)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성별과 종교 유무가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의 F 값은 5.56,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14.1%(수정 계수 11.6%)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모든 변인이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준사회적 상호작용, 분별성과 보편성이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의 F 값은 26.62, 유의확률은 $p < .001$ 이었으며, 총 변량의 67.3%(수정 계수 64.7%)가 모형에 포함된 예측 변인들에 의하여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더 나아가,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비성소수자들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에 의해 설명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의 성별이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더 부정적이었으며,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일 때보다 양성애자일 때 더 부정적이었다. 둘째,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 비성소수자들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이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을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 세속적 거부 대 지지,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 수준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에서 접한 성소수자 등장인물을 사회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다고 인지할수록, 세속적인 것을 지지하기보다 거부할수록,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있다고 믿을수록, 성적 지향이 어린 시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동성애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변한다고 믿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레즈비언보다 게이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던 선행 연구들(예: 윤이현 등, 2016; Eliason, 1997; Herek, 2000b, 2002; LaMar & Kite, 1998; Proulx, 1997; Span & Vidal, 2003; Whitley, 2001)과 양성애자 여성보다 양성애자 남성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던 선행 연구들(예: Helms & Waters, 2016; Herek, 2002; Mohr & Rochlen, 1999; Steffens & Wagner,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성역

할 위반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성역할 위반자는 성역할 순응자에 비해 미움을 받지만(예: Laner & Laner, 1979, 1980), 성역할 위반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성역할 위반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예: Feinman, 1981; Herek, 1986a; Stockard & Johnson, 1979). 즉, 여성보다 남성의 성역할 경직성이 더 높아 성역할 위반자로 인식될 때 더 강력하게 거부되므로, 여성이 성역할 위반자로 인식될 때에 비해서 남성이 성역할 위반자로 인식될 때 보다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상이하다는 선행 연구들(예: Eliason, 1997; Herek,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양성애자들은 성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성애-동성애 이분법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불안이나 불편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예: Ochs, 1996; Ochs & Deihl, 1992; Paul, 1996; Paul & Nichols, 1988; Rust, 1996).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양성애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그들의 성적 지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로 성적 지향을 양성애자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로 정체화할 용기가 부족하거나(Eliason, 2001), 이성에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애의 안정성 혹은 진정성을 의심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비해 양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은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지지 않아 가설 2-1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을 드러냈을 때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않고, 그로 인해 비성소수자들이 성소수

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의 기회를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살펴보면, 직접 접촉 경험이 없는 연구 참가자들이 31.5%에 달했으며, 직접 접촉 경험이 있는 연구 참가자는 68.5%로, 연구 참가자들의 약 삼분의 일이 성소수자와의 직접 접촉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추가로 직접 접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이들(68.5%)만을 대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직접 접촉 변인 중 접촉의 질이 성소수자(LGB)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의 양 자체보다는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예: Caspi, 1984; Cook, 1985; Deforges et al., 1991; Sigelman & Welch, 1993; Wittig & Grant-Thompson, 1998)를 반복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소수자와의 간접 접촉 경험의 일부 하위 요인이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미디어 시청 시간과 미디어의 다양성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시청 시간과 미디어의 다양성은 간접 접촉의 양에 대한 측정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접촉의 양 자체보다는 접촉의 질이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는 연구들(Caspi, 1984; Cook, 1985; Desforges et al., 1991; Sigelman & Welch, 1993; Wittig & Grant-Thompson, 1998)을 통해 미디어 시청 시간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접촉의 변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간접 접촉의 변인들 중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했을 가능성과, 성소수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을 모두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집단 간 직접 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일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간접 접촉으로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예: Neuendorf et al., 1992; Fujioka, 1999; Tan et al., 1997)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접 접촉 경험은 제한적으로 보고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안적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간접 접촉으로서 편견을 감소시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을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일부 하위 요인이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인 외부 대 내부 권한과 고정 대 가변 종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지만, 세속적 거부 대 지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인 것에 비해 잠시 동안 경험되는 자연 세계, 과학, 세속적 문화,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의 가치와 같은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 교리를 중시하므로, 성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거부하여 세속적 거부 대 지지 요인과 관련성을 나타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종교 유무에 따라 종교적 근본주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외부 대 내부 권한, 고정 대 가변 종교, 그리고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전체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지만, 세속적 거부 대 지지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하위 요인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종교 유무와 별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종교적 근본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인 분별성, 불변성 및 보편성 모두가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가설 2-4가 지지되었다. 분별성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간 집단 차이를 강조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열을 더욱 심화하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하등 인간화의 견해를 조장하여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Haslam et al., 2000; Rothbart & Taylor, 1992; Yzerbyt et al., 1997). 반면, 불변성은 성적 지향을 타고 태어나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Whitley, 1990), 보편성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동성애자가 자연스럽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Haslam & Levy, 2006; Hubbard & Hegarty, 2014). 특히, 본 연구에서 분별성의 표준화 계수가 .46으로 나타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분별성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불변성의 상관 방향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Haslam & Levy, 2006)와 반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불변성이 낮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록 상관 계수의 크기가 작기는 하였으나 불변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았을 때, 불변성을 옹호하는 정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부정성 간 관계가 선행 연구(Haslam & Levy, 2006)에서와 동일한 방향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 불변성에 대한 믿음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성소수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성소수자의 특성 관련 변인들, 즉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는 동성애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 비성소수자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성소수자의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설명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를 수행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성소수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선행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변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변인들의 설명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도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심리·사회적인 변인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는 심리·사회적인 변인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에 포함된 심리·사회적인 변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는 것을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심리·사회적인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수준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며,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유용한 예측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고정관념 및 편견과 통상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일부 주장(예: Allport, 1954; Leyens et. al., 2000; Rothbart & Taylor, 1992; Yzerbyt & Rocher, 2002)과는 다르게,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Haslam & Levy, 2006)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반복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경로를 확인하여 보다 확장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와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제한적인 의미만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사회적으로 다른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Herek, 2000a; Kaiser Family Foundation, 2001), 이성애자가 이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 또한 상이하다는 점(Eliason, 1997; Herek, 2002)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해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태도를 측정하면 각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에 대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태도 척도(ATLGS)를 사용하고, 양성애자에 대한 관용과 양성애에 대한 안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양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ARBS)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보다 엄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념, 사건, 대상 등에 함축된 의미를 여러 차원으로 미분하는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Osgood, 1952)을 사용하여 동일한 차원들 상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의 문제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하위 요인 중 외부 대 내부 권한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 연구에서 .78, 본 연구에서 .68이었으며, 세속적 거부 대 지지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 연구에서 .86, 본 연구에서 .54였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의 하위 요인 중 불변성의 내적 합치도는 선행 연구에서 .85, 본 연구에서 .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하위 요인에서 선행 연구보다 내적 합치도가 더 낮게 나타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와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가 별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역-역번역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낮은 내적 합치도가 나타났으리라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상황에 적절하게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의 표집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예상치 못했던 연구 참가자들의 중복 참여 문제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된 자료의 양이 적지 않았으므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므로,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에 다수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연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며 연구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 탈락하지 않고 연구 참여를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성실성 수준이 매우 높았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특성 및 비성소수자 개인이 지닌 여러 특성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이다. 향후 모집단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해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고현은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권, 성소수자, 소수자에 대한 태도, 차별 경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혜경은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치와 행동의 관계, 사회계층에 따른 심리 과정의 차이, 문화의 유지와 변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강현선, 김현주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 성격의 매개효과. 청소년

- 문화포럼, 47, 7-29.
- 김은하, 신윤정 (2016). 중, 고등학교 교사의 권 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 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조절 된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 (3), 431-453.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 김철권 (2013). 게이와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가 의과대학생의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영화연구, 56(0), 103-128.
-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 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 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 박준성 (2010). 한국인의 신앙심: 구성요인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 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 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 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이봉재 (2006). 동성애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 학생들의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1-19.
- 장인실 (2017).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태도 및 자 아존중감이 동성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60-569.
- 전민경, 전재희, 황선아 (2017). 고등학생의 동성 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0), 631-642.
- 정애경, 윤은희 (2020). 한국 이성애자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탐색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583-608.
- 조령함, 이윤, 이해은 (2021). 동성애 관련 미디어 이용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 중국 18-22세 청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 학회 논문지, 21(4), 123-136.
- 최경화, 신형진 (2019). 양성평등 의식이 동성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26(3), 81-102.
- 키쉬겔개이 (2018). 성소수자의 권리 및 수용 현대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후지사키 요시애, 강신재, 진영재 (2019). 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 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3), 33-67.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ltemeyer, B. (2001). Changes in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42(2), 63-75.
- Altemeyer, B., & Hunsberger, B. (1992). Authoritarianism, religious fundamentalism, quest, and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2), 113-133.
- Arlı, D., Badejo, A., & Sutanto, N. (2020). Exploring the effect of intrinsic religiousness, extrinsic religiousness, and religious fundamentalism on people's attitude towards lesbians and gays in Indonesia.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32(2), 118-134.
- Basow, S. A., & Johnson, K. (2000). Predictors of homophobia in female college students. *Sex Roles*, 42(5), 391-404.
- Baunach, D. M., Burgess, E. O., & Muse, C. S. (2009). Southern (dis)comfort: Sexual prejudice

고 현·박혜경 /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 and contact with gay men and lesbians in the South. *Sociological Spectrum*, 30(1), 30-64.
- Birchmore, A., & Kettrey, H. H. (2021). Exploring the boundaries of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bury your gays” media trope on homophobic and sexist attitudes. *Feminist Media Studies*. E-publication ahead of print. DOI: 10.1080/14680777.2021.1887919.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554-594). New York: McGraw Hill.
- Brookey, R. (2002). *Reinventing the male homosexual: The rhetoric and power of the gay gen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antril, H., & Allport, G. (1935). *The psychology of radio*. New York: Harper.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74-80.
- Conway, J. C., & Rubin, A. M.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4), 443-463.
- Cook, S. W. (1985). Experimenting on social issues: The case of school desegregation. *American Psychologist*, 40(4), 452-460.
- Desforges, D. M., Lord, C. G., Ramsey, S. L., Mason, J. A., Van Leeuwen, M. D., West, S. C., & Lepper, M. R. (1991). Effects of structured cooperative contact on changing negative attitudes toward stigmatized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31-544.
- Eddy, D. M. (1986). Before and after attitudes toward aging in a BSN progra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5), 30-34.
- Eliason, M. J. (1997). The prevalence and nature of biphobia in heterosexual undergraduat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3), 317-326.
- Eliason, M. (2000). Bi-negativity: The stigma facing bisexual men. *Journal of Bisexuality*, 1(2-3), 137-154.
- Ernulf, K. E., Innala, S. M., & Whitam, F. L. (1989). Biological explanation, psychological explanation, and tolerance of homosexuals: A cross-national analysis of beliefs and attitudes. *Psychological Reports*, 65(3), 1003-1010.
- Falomir-Pichastor, J. M., & Mugny, G. (2009). I'm not gay, I'm a real man!: Heterosexual men's gender self-esteem and sexual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9), 1233-1243.
- Feinman, S. (1981). Why is cross-sex-role behavior more approved for girls than for boys? A status characteristic approach. *Sex roles*, 7(3), 289-300.
- Finlay, B., & Walther, C. S. (2003). The relation of religious affiliation, service attendance, and other factors to homophobic attitudes among university student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4(4), 370-393.
- Fujioka, Y. (1999). Television portrayals and African-American stereotypes: Examination of television effects when direct contact is lack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1), 52-75.
- Harwood, J. (2017). Indirect and mediated intergroup contact. In Y. Y. Kim, & K. McKay-Semmler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2, pp. 912-920). New York: Wiley-Blackwell.
- Haslam, N., Bastian, B., Bain, P., & Kashima, Y. (2006). Psychological essentialism, implicit theori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63-76.
- Haslam, N., & Levy, S. R. (2006).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471-485.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113-127.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2). Are essentialist beliefs associated with prejud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1), 87-100.
- Hegarty, P., & Pratto, F. (2001). Sexual orientation beliefs: Their relationship to anti-gay attitudes and biological determinist argum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41*(1), 121-135.
- Heinze, J. E., & Horn, S. S. (2009). Intergroup contact and beliefs about homosexua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7), 937-951.
- Helms, J. L., & Waters, A. M. (2016). Attitudes toward bisexual men and women. *Journal of Bisexuality, 16*(4), 454-467.
- Herek, G. M. (1984). Beyond "homophobia":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10*(1-2), 1-21.
- Herek, G. M. (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5), 563-577.
- Herek, G. M. (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ex Research, 25*(4), 451-477.
- Herek, G. M. (2000a). The psychology of sexual prejudi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19-22.
- Herek, G. M. (2000b). Sexual prejudice and gender: Do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differ? *Journal of Social Issues, 56*(2), 251-266.
- Herek, G. M. (2002).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bisexual men and wome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ex Research, 39*(4), 264-274.
- Herek, G. M., & Capitano, J. P.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4), 412-424.
- Herek, G. M., & Glunt, E. K. (1993).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30*(3), 239-244.
- Hewstone, M., Rubin, M., & Willis, H. (2002).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575-604.
- Hilton, A. N., & Szymanski, D. M. (2014). Predictors of heterosexual siblings acceptance of their lesbian sister or gay brother.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8*(2), 164-188.
- Hinrichs, D. W., & Rosenberg, P. J. (2002). Attitudes toward gay, lesbian, and bisexual persons among heterosexual liberal art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43*(1), 61-84.
- Horton, D., & Richard Wohl,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Observations on intimacy at a distance. *Psychiatry, 19*(3), 215-229.
- Hubbard, K., & Hegarty, P. (2014). Why is the history of heterosexuality essential? Beliefs about the history of sexual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sexual prejudice. *Journal of Homosexuality, 61*(4), 471-490.
- Hunsberger, B.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hostility toward homosexuals in non-Christian religious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6*(1), 39-49.
- Hunsberger, B., Owusu, V., & Duck, R. (1999). Religion and prejudice in Ghana and Canada: Religious fundamentalism, right-w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9*(3), 181-194.

- Islam, M. R., & Hewstone, M. (1993). Dimensions of contact as predictors of intergroup anxiety, perceived out-group variability, and out-group attitude: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6), 700-710.
- Jayaratanne, T. E., Ybarra, O., Sheldon, J. P., Brown, T. N., Feldbaum, M., Pfeffer, C. A., & Petty, E. M. (2006). White Americans' genetic lay theories of race differences and sexual orientation: Their relationship with prejudice toward Blacks, and gay men and lesbia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1), 77-94.
- Jonathan, E. (2008). The influenc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Christian orthodoxy on explicit and implicit measures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8(4), 316-329.
- Kaiser Family Foundation. (2001). *Inside-out: A report on the experiences of lesbians, gays, and bisexuals in America and the public's view on issues and politics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kff.org>.
- Karafantis, D. M., & Levy, S. R. (2004). The role of children's lay theories about the malleability of human attributes in beliefs about and volunteering for disadvantaged groups. *Child Development*, 75(1), 236-250.
- LaMar, L., & Kite, M. (1998). Sex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ex Research*, 35(2), 189-196.
- Laner, M. R., & Laner, R. H. (1979). Personal style or sexual preference: Why gay men are disliked.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9, 215-228.
- Laner, M. R., & Laner, R. H. (1980). Sexual preference or personal style: Why lesbians are disliked. *Journal of Homosexuality*, 5, 339-356.
- Lazar, A., & Hammer, J. H. (2018). Religiousness and anti-gay/lesbian attitudes: The mediating function of intratextual religious fundamentalism. *Psychology of Violence*, 8(6), 763-771.
- Levy, S. R., & Dweck, C. S. (1999). The impact of children's static versus dynamic conceptions of people on stereotype formation. *Child Development*, 70(5), 1163-1180.
- Levy, S. R., Stroessner, S. J., & Dweck, C. S. (1998). Stereotype formation and endorsement: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21-1436.
- Leyens, J. P., Paladino, P. M., Rodriguez-Torres, R., Vaes, J., Demoulin, S., Rodriguez-Perez, A., & Gaunt, R. (2000). The emotional side of prejudice: The attribution of secondary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86-197.
- Liht, J., Conway, L. G., Savage, S., White, W., & O'Neill, K. A. (2011). Religious fundamentalism: An empirically derived construct and measurement scale.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3(3), 299-323.
- Martin, C. L., & Parker, S. (1995). Folk theories about sex and race dif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1), 45-57.
- Marty, M. E. & Appleby, S. R. (Eds.), (1995). *Fundamentalism comprehen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chinsky, D. J., & Iverson, T. G. (1996). Homophobia in heterosexual female undergraduates. *Journal of Homosexuality*, 31(4), 123-128.
- Mohr, J., & Rochlen, A. (1999). Measuring 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in lesbian, gay male, and heterosexual popul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53-369.
- Neuendorf, K. A., Armstrong, G. B., & Brentar, J. E. (1992). Minority images and racial attitudes

- as functions of viewing measure specificity and gender.
- Ochs, R., (1996). Biphobia: It goes more than two ways. In B. A. Firestein (Ed.), *Bisexuality: The psychology and politics of an invisible minority* (pp. 217-23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Ochs, R., & Deihl, M. (1992). Moving beyond binary thinking. In W. J. Blumenfeld (Ed.), *Homophobia: How we all pay the price* (pp. 67-75). Boston: Beacon Press.
- Osgood, C. E. (1952).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eaning. *Psychological Bulletin*, *49*(3), 197-237.
- Paul, J. P. (1996). Bisexuality: Exploring/exploding the boundaries. In R. C. Savin-Williams & K. M. Cohen (Eds.), *The lives of lesbians, gays, and bisexuals: Children to adults* (pp. 436-461).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Paul, J. P., & Nichols, M. (1988). "Biphobia" and the construction of a bisexual identity. In M. Sheroff & W. Scott (Eds.), *The sourcebook on lesbian/gay health care* (pp. 142-147). Washington, DC: National Lesbian and Gay Health Foundation.
- Pettigrew, T. F. (1997).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73-185.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restwich, A., Kenworthy, J. B., Wilson, M., & Kwan-Tat, N. (2008). Differential relations between two types of contact and implicit and explicit racial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4), 575-588.
- Proulx, R. (1997). Homophobia in northeastern Brazil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osexuality*, *34*(1), 47-56.
- Revenson, T. A. (1989). Compassionate stereotyping of elderly patients by physicians: Revising the social contact hypothesis. *Psychology and Aging*, *4*(2), 230-234.
- Rothbart, M., & Taylor, M. (1992). Category labels and social reality: Do we view social categories as natural kinds? In G. Semin & K. Fiedler (Eds.), *Language, interaction and social cognition* (pp. 11-36). London: Sage.
- Rust, P. C. (1996). Monogamy and polyamory: Relationship issues for bisexuals. In B. A. Firestein (Ed.), *Bisexuality: The psychology and politics of an invisible minority* (pp. 127-148). Thousand Oaks, CA: Sage
- Sakalh, N., & Ugurlu, O. (2002). Effects of social contact with homosexuals on heterosexual Turkish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42*(1), 53-62.
- Schiappa, E., Allen, M., & Gregg, P. B. (2007). Parasocial relationships and television: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In R. Preiss, B. Gayle, N. Burrell, M. Allen, & J. Bryant (Eds.), *Mass media research: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pp. 301-31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1), 92-115.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6). Can one TV show make a difference? A Will & Grace and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Journal of Homosexuality*, *51*(4), 15-37.
- Shim, C., Zhang, Y. B., & Harwood, J. (2012). Direct and mediated intercultural contact: Koreans' attitudes toward US America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3), 169-188.

- Sigelman, L., & Welch, S. (1993). The contact hypothesis revisited: Black-white interaction and positive racial attitudes. *Social Forces*, 71(3), 781-795.
- Span, S. A., & Vidal, L. A. (2003).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A preliminary study. *Psychological Reports*, 92(2), 565-572.
- Steffens, M. C., & Wagner, C. (2004). Attitudes toward lesbians, gay men, bisexual women, and bisexual men in Germany. *Journal of Sex Research*, 41(2), 137-149.
- Stockard, J., & Johnson, M. M. (1979). The social origins of male dominance. *Sex Roles*, 5(2), 199-218.
- Tan, A., Fujioka, Y., & Lucht, N. (1997). Native American stereotypes, TV portrayals, and personal contac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265-284.
- Tygart, C. E. (2000). Genetic causation attribution and public support of gay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3), 259-275.
- VandenBos, G. R. (Ed.). (2007).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ezzali, L., Hewstone, M., Capozza, D., Giovannini, D., & Wölfer, R. (2014).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with extended and vicarious forms of indirect contact.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5(1), 314-389.
- Weiner, B. (1995). *Judgments of responsibility: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Guilford Press.
- Whitley, B. E. (1990). The relationship of heterosexuals' attributions for the causes of homosexuality to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369-377.
- Whitley, B. E. (2001). Gender-role variables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Sex Roles*, 45(11), 691-721.
- Wilcox C & Norrander B. (2002). Of moods and morals: The dynamics of opinion on abortion and gay rights. In B Norrander, C Wilcox (Eds.),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pp. 121-147). Washington, D.C.: CQ Press.
- Williamson, W. P., & Ahmad, A. (2007). Survey research and Islamic fundamentalism: A question about validity. *Journal of Muslim Mental Health*, 2(2), 155-176.
- Wittig, M. A., & Grant-Thompson, S. (1998). The utility of Allport's conditions of intergroup contact for predicting perceptions of improved racial attitudes and beliefs.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795-812.
- Worthen, M. G. (2013). An argument for separate analyses of attitude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men, bisexual women, MtF and FtM transgender individuals. *Sex Roles*, 68(11), 703-723.
- Yzerbyt, V. Y., & Rocher, S. (2002). Subjective essentialism and the emergence of stereotypes. In C. McGarty, V. Y. Yzerbyt, & R. Spears (Eds.), *Stereotypes as explanations: The formation of meaningful beliefs about social groups* (pp. 38-66).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zerbyt, V., Rocher, S., & Schadrin, G. (1997). Stereotypes as explanations: A subjective essentialistic view of group perception. In R. Spears, P. J. Oakes, N. Ellemers, & S. A. Haslam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ereotyping and group life* (pp. 20-50). Cambridge, UK: Blackwell.

1 차원고접수 : 2022. 09. 29.
수정원고접수 : 2023. 02. 02.
최종게재결정 : 2023. 02. 23.

A Study on Attitudes and Predictors of Attitudes of Cisgender Heterosexuals toward Lesbian, Gay, and Bisexual(LGB): Focusing on Contact Experience,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Essentialist Beliefs*

Hyun Ko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whether attitudes of cisgender heterosexuals toward lesbians, gays, and bisexuals (LGB) differ depending on their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and whether contact experience,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essentialist beliefs are related to attitudes of cisgender heterosexuals toward LGB. To address these questions, we conducted an online study of cisgender heterosexuals aged from 19 to 39 years and analyzed data from 308 participants.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s scale, attitudes regarding bisexuality scale, direct/indirect contact experience questions, multi-dimensional fundamentalism inventory,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scale, and other demographic questions. As a result, participants showe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men sexual minorities compared with women sexual minorities and bisexuals compared with homosexuals. In addition, indirect contact experience-parasocial interaction, a subscale of religious fundamentalism-worldly rejection versus worldly affirmation, and subscales of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discreteness, immutability, and universal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ttitudes of cisgender heterosexuals toward LGB. Specifically, attitudes toward LGB were found to be more negative if participants perceived LGB characters in the media less socially attractive and realistic, if they supported religion over secularity, and if they believed that there was fundamental psychological difference between homosexuals and heterosexuals, that sexual orientation was a category that can be changed throughout a lifetime, and that homosexuality was historically and culturally limited. In addition, we conducted separat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attitude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women, and bisexual men and found that attitude predictors were somewhat differ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cisgender heterosexuals toward LGB in various ways. Finally,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attitude of cisgender heterosexuals toward LGB, contact experience, religious fundamentalism, essentialist beliefs about homosexuality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master's thesis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by the first autho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고 현박혜경 /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부록 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여성 및 양성애자 남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부록 1-1.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i>B</i>	β	<i>t</i>	<i>p</i>	<i>B</i>	β	<i>t</i>	<i>p</i>	
통 제 변 인	성별	.58	.32	5.40***	.000	.11	.06	1.50	.135
	연령	.00	.00	.05	.961	-.02	-.10	-1.69	.093
	종교 유무	-.35	-.18	-3.12**	.002	-.03	-.02	-.44	.664
	혼인 상태	-.27	-.13	-1.79	.074	-.17	-.08	-1.81	.071
	교육 수준	.10	.10	1.37	.171	.04	.04	.84	.403
	부모의 교육 수준	.03	.04	.60	.549	.00	.00	.00	1.000
	일 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1	.01	.13	.896	-.03	-.03	-.87	.385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3	.06	1.01	.312	.02	.04	1.00	.319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7	.13	2.11*	.036	
	직접 접촉의 질				-.06	-.13	-2.43*	.016	
	성소수자 친구의 수				-.01	-.03	-.39	.701	
	미디어 시청 시간				.00	-.00	-.04	.968	
	미디어의 다양성				-.01	-.02	-.51	.608	
	준사회적 상호작용				-.34	-.34	-7.44***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11	.09	2.02*	.045	
	고정 대 가변 종교				.11	.09	2.22*	.027	
	세속적 거부 대 지지				.23	.15	3.60***	.000	
	분별성				.37	.33	6.85***	.000	
	불분성				-.09	-.08	-2.20*	.029	
보편성				-.19	-.13	-2.49*	.014		
<i>R</i> ²			.152			.703			
수정된 <i>R</i> ²			.127			.680			
<i>R</i> ² 변화량			.152			.551			
<i>F</i>			6.07***			40.08***			
유의확률 <i>F</i> 변화량			.000			.000			
<i>p</i>			.000			.000			

* *p*<.05, ** *p*<.01, *** *p*<.001.

Durbin-Watson 2.184

부록 1-2.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게이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증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β	t	p	B	β	t	p	
통 계 변 인	성별	.69	.35	6.02***	.000	.22	.11	2.74**	.007
	연령	.00	-.02	-.24	.809	-.02	-.13	-2.20*	.029
	종교 유무	-.37	-.17	-3.04**	.003	-.06	-.03	-.66	.511
	혼인 상태	-.33	-.14	-2.04*	.042	-.20	-.09	-1.84	.067
	교육 수준	.10	.11	1.41	.160	.05	.05	1.03	.303
	부모의 교육 수준	.05	.06	.94	.349	.02	.02	.58	.562
	일 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3	.04	.62	.539	-.02	-.02	-.41	.681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5	.08	1.33	.184	.04	.06	1.43	.154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5	.08	1.18	.239	
	직접 접촉의 질				-.04	-.08	-1.40	.162	
	성소수자 친구의 수				-.01	-.02	-.33	.742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61	.542	
	미디어의 다양성				.01	.04	1.10	.274	
	준사회적 상호작용				-.29	-.27	-5.61***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11	.08	1.69	.093	
	고정 대 가변 종교				.07	.05	1.20	.230	
	세속적 거부 대 지지				.23	.14	3.11**	.002	
	분별성				.49	.41	7.90***	.000	
	불변성				-.08	-.07	-1.76	.079	
	보편성				-.21	-.13	-2.47*	.014	
R^2			.172				.671		
수정된 R^2			.148				.645		
R^2 변화량			.172				.498		
F			7.06***				26.37***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2.298

고 현박해경 / 성소수자(LGB)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태도와 태도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을 중심으로

부록 1-3.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양성애자 여성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i>B</i>	β	<i>t</i>	<i>p</i>	<i>B</i>	β	<i>t</i>	<i>p</i>	
통제변인	성별	.54	.28	4.84***	.000	.06	.03	.79	.433
	연령	.01	.06	.64	.522	-.01	-.06	-.95	.343
	종교 유무	-.43	-.21	-3.62***	.000	-.15	-.07	-1.93	.054
	혼인 상태	-.27	-.12	-1.72	.087	-.15	-.07	-1.47	.143
	교육 수준	.06	.06	.80	.427	.01	.01	.13	.897
	부모의 교육 수준	.05	.06	.88	.380	.02	.02	.45	.651
	일 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3	.03	.48	.632	-.02	-.02	-.44	.664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1	.02	.25	.799	.00	.00	-.06	.953
	예측변인	직접 접촉의 빈도				.03	.05	.73	.467
직접 접촉의 질					-.01	-.02	-.37	.713	
성소수자 친구의 수					-.02	-.02	-.46	.644	
미디어 시청 시간					.00	.02	.54	.587	
미디어의 다양성					-.01	-.03	-.65	.518	
준사회적 상호작용					-.34	-.32	-6.88***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07	.05	1.14	.254	
고정 대 가변 종교					-.03	-.03	-.58	.566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5	.10	2.27*	.024	
분별성					.56	.48	9.67***	.000	
불변성					-.09	-.08	-1.97	.050	
보편성					-.18	-.11	-2.25*	.025	
<i>R</i> ²		.150				.696			
수정된 <i>R</i> ²		.125				.672			
<i>R</i> ² 변화량		.150				.546			
<i>F</i>		5.97***				29.64***			
유의확률 <i>F</i> 변화량		.000				.000			
<i>p</i>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2.120

부록 1-4. 접촉 경험, 종교적 근본주의 및 본질주의적 믿음과 양성애자 남성애에 대한 태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308)

	1단계				2단계				
	B	β	t	p	B	β	t	p	
통 계 변 인	성별	.51	.26	4.43***	.000	.04	.02	.48	.632
	연령	.01	.06	.70	.487	-.01	-.05	-.90	.369
	종교 유무	-.39	-.19	-3.24**	.001	-.16	-.08	-1.88	.061
	혼인 상태	-.28	-.12	-1.73	.084	-.13	-.06	-1.25	.214
	교육 수준	.06	.06	.79	.432	.02	.02	.31	.759
	부모의 교육 수준	.07	.08	1.20	.232	.03	.04	.95	.341
	일 인당 가계 월평균 소득	.05	.06	.92	.361	-.00	.00	-.03	.975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02	.03	.52	.603	.01	.01	.32	.751
	예 측 변 인	직접 접촉의 빈도				.03	.04	.63	.529
직접 접촉의 질					-.00	.00	-.03	.974	
성소수자 친구의 수					-.02	-.03	-.68	.498	
미디어 시청 시간					.01	.04	.99	.326	
미디어의 다양성					.00	.02	.39	.695	
준사회적 상호작용					-.27	-.26	-5.27***	.000	
외부 대 내부 권한					.01	.01	.20	.844	
고정 대 가변 종교					-.05	-.04	-.91	.364	
세속적 거부 대 지지					.10	.06	1.42	.156	
분별성					.64	.53	10.35***	.000	
불변성					-.08	-.07	-1.68	.095	
보편성					-.26	-.16	-3.10**	.002	
R^2			.141			.673			
수정된 R^2			.116			.647			
R^2 변화량			.141			.532			
F			5.56***			26.62***			
유의확률 F 변화량			.000			.000			
p			.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 2.083

부록 II. 측정 도구

·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레즈비언은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2. 여성의 동성애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용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R)					
3. 여성의 동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4. 사적이고 합의된 레즈비언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R)					
5. 여성의 동성애는 죄악이다.					
6. 레즈비언의 증가는 한국의 도덕성 저하를 의미한다.					
7. 여성의 동성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는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R)					
8. 여성의 동성애는 우리의 많은 기본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9. 여성의 동성애는 열등한 형태의 성욕이다.					
10. 여성의 동성애는 질병이다.					
11. 게이는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12. 남성의 동성애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용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R)					
13. 남성의 동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14. 사적이고 합의된 게이들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R)					
15. 남성의 동성애는 죄악이다.					
16. 게이들의 증가는 한국의 도덕성 저하를 의미한다.					
17. 남성의 동성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는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R)					
18. 남성의 동성애는 우리의 많은 기본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19. 남성의 동성애는 열등한 형태의 성욕이다.					
20. 남성의 동성애는 질병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양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2.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성적 지향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3. 양성애자 여성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4.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5. 레즈비언들은 양성애자 여성들보다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덜 혼란스러워한다.					
6. 동성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양성애도 여성에게 안정적인 성적 지향이다. (R)					
7. 여성의 양성애는 왜곡된 상태가 아니다. (R)					
8. 내가 아는 한 여성의 양성애는 부자연스럽다.					
9. 여성의 양성애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쇠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 여성의 양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11. 여성의 양성애는 비도덕적이다.					
12. 여성의 양성애는 질병이다.					
13.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직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14.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성적 지향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15. 양성애자 남성들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16.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17. 게이들은 양성애자 남성들보다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덜 혼란스러워한다.					
18. 동성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양성애도 남성에게 안정적인 성적 지향이다. (R)					
19. 남성의 양성애는 왜곡된 상태가 아니다. (R)					
20. 내가 아는 한 남성의 양성애는 부자연스럽다.					
21. 남성의 양성애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의 쇠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남성의 양성애는 성별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에 해롭다.					
23. 남성의 양성애는 비도덕적이다.					
24. 남성의 양성애는 질병이다.					

·다차원 근본주의 척도

■ 귀하께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①②③⑤: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A에 응답, ④: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B에 응답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A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 삶의 모든 측면이 종교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R)					
2. 종교는 공적인 문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R)					
3.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행동을 위한 가장 좋은 지침이다. (R)					
4.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5.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신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존경스럽다.					
6. 종교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R)					
7. 사회가 변화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한다. (R)					
8. 종교는 현대 세계의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R)					
9. 진정한 종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10. 종교 단체에서 여성들은 어떤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R)					
11. 이상한 생각에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12.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13. 나에게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					
14. 내가 투표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안은 종교적인 것이다.					
15. 모든 예술은 신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					
종교적 근본주의 척도 B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 삶의 모든 측면이 종교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R)					
2. 종교는 공적인 문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R)					
3.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행동을 위한 가장 좋은 지침이다. (R)					
4.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5.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신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존경스럽다.					
6. 종교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R)					
7. 사회가 변화에 따라 종교도 변해야 한다. (R)					
8. 종교는 현대 세계의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R)					
9. 진정한 종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10. 종교 단체에서 여성들은 어떤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R)					
11. 이상한 생각에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12.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13. 나에게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					
14. 내가 투표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안은 종교적인 것이다.					
15. 모든 예술은 신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여야 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동성애에 대한 본질주의적 믿음 척도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성적 지향은 명확하고 뚜렷한 경계가 있는 범주다. 사람들은 동성애자거나 이성애자다.					
2. 동성애자들은 필연적이거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					
3.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R)					
4. 양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야 한다.					
5. 누가 동성애자인지 혹은 이성애자인지를 아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 준다.					
6. 성적 지향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7. 한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혹은 이성애자인지는 어린 시절에 거의 정해진다.					
8.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없다.					
9. 동성애와 이성애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다.					
10.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을 바꾸도록 도울 수 있다. (R)					
11.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특정한 문화권에만 존재할 것이다. (R)					
12.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 동안 쪽 존재해 왔을 것이다.					
13. 모든 문화권에는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4. 동성애자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다.					
15. 동성애자가 대거 등장한 것은 지난 세기에 불과하다. (R)					